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처음 말씀을 받고 감격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신앙의 성패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1. 평판과 진단

예수님은 사데 교회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평가하십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내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데 교회는 겉보기에는 활력이 넘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이 생명력과 열정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임을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사데 교회의 모습은 과거 위기를 직시하지 못했던 사데 도시와도 닮아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했지만 정작 방비가 허술해 적의 침입을 허용했던 도시의 역사처럼, 사데 교회의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영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아닌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번듯한 신앙생활에 안주하며 내면의 위기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데 교회에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일곱 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님만이 그들의 영적 실상을 꿰뚫어 보시며, 참된 신앙으로 회복시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운명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2. 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데 교회에 처방을 내려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받았으며 들었던 것’, 곧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받았던 첫 마음의 감격과 뜨거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의 영적 무감각을 직시하고 회개함으로써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긴장감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안일함이나 타성에 젖어 영적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밀착되어 그분과의 사귄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깨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걷는 영예를 얻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로마 황제는 깨끗한 흰 옷을 입은 로마시민들의 행렬을 이끌며 개선하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하는 영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사데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는 안일함에 빠진 교회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좋은 이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참된 신앙의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